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바라보는 충청인의 마음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 김학민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충청권에 던진 가장 큰 공약 중 하나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이었다. 세종시가 행정 기능만으로는 자족 도시가 될 수 없다는 취지를 피력하면서 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천명하였다. 그러한 시기에 후보자가 대덕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하여 포스트-나노 시대, 펠토과학시대에 맞추어 과학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 과학도시는 인구 40만 내지 50만 명 규모로 최첨단 연구를 수행할 기초 및 미래과학 연구 중심의 도시로서 세계적 과학자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학교와 병원 등을 선진 시설로 갖추는 신 개념의 도시 공간이라는 구상을 내 놓았다.

충청권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세종시를 과학과 비즈니스 기능이 융합된 국제규모의 도시로 건설하여 기존의 행정중심도시에서 진화된 개념으로 제시한 자족 도시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충청권 유권자들은 이에 부응하여 이명박 후보자를 지지하였고 이러한 결과와 함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념으로 확대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기점으로 충북의 오송-오창 지역과 대전시의 대덕연구단지가 상호 연계된 형태로 발전시킨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입지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한발 물어진 입장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충청권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에 빠져들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한반도대운하 사업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성장 정책이다.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일단 중단된 상태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그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경북과 전북지역까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뛰어드는 양상이고 충청권은 광역지자체 별로 경쟁관계에 있는 모양새다.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충청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판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축소에 앞장선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자가 준 상처가 덧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선거에서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명박 후보자의 충청권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때문에 커다란 지지를 보내 주었는데, 충청

권 최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이렇게 한없이 표류한다면 충청권은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손실된 자존심은 상당 기간 치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하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책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기초과학·문화예술·비즈니스를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합한 곳은 어디인가? 대덕연구개발특구보다 과학 인프라가 풍부한 곳이 어디이며, 생명산업분야 집적으로 오송보다 많은 투자를 예상하는 곳은 어디이며, 또 새로운 차원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계획된 곳은 어디인가? 이들 세 곳을 연계한 지역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곳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은 이미 자명하게 나와 있는 상태이다.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족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국제 수준의 첨단 과학 산업과 비즈니스가 어우러져야 한다는 답을 내놓은 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 이러한 검증된 정책이 뚜렷한 이유 없이 표류하고 있는 동안 지역간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고, 국가의 경쟁력은 모멘텀을 잃어 가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가 충청권이라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 만약 실기를 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만 커 갈 것이다.

충청권 국민들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충청권 국민들을 위한 선거용이거나 민심수습용으로 보지 않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책사업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때문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클러스터 사업 등에서 많은 것을 양보했던 충남 도민들은 세종시가 혁신도시와 산업 클러스터를 융합해 내는 모습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바로 이러한 것을 구현해 내는 것이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이다. 이처럼 명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를 아직까지 정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 충청권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든 상태까지 와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과학과 산업이 융합되는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충청권에는 대전의 과학 기술 및 연구개발 기능과 충남의 천안·아산지역에 분포한 IT산업, 그리고 충북의 청주·청원·진천에 분포한 BT산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들 3개 지역을 합해 벨트를 이루면 면적이나 인구에서 실리콘밸리, 루트 128, 캠브리지테크노폴, 밀라노, 바덴뷔르템베르크 등 광역적인 클러스터로 성공한 지역과 유사한 규모이다. 세종시로부터 반경 40km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빈번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이를 연계하는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대규모 벨트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충청권 국민들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충청권 경제 활성화를 뛰어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충청권 전체를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역동적인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